

지역사회 융합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체험: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 방법 적용

김한솜¹, 최성열^{2*}, 이예은¹, 유지연¹, 박지현¹, 변주영¹, 양가영¹, 곽은별¹
¹광주여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생, ²광주여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Experience of Job Stress among Female Community Convergence Health Care Experts: Applying Parse's Human Becoming

Han-Som Kim¹, Seong-Youl Choi^{2*}, Ye-Eun Lee¹, Ji-Yeon Yu¹, Ji-Hyeon Park¹,
Ju-Yeong Byeon¹, Ga-Young Yang¹, Eun-Byeol Kwak¹

¹Student,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Kwangju Women's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한국은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체험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여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Parse의 인간되어감 질적 연구의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에 종사하는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 9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너와 나의 관계 형성 이후 진솔한 대화를 통해 참여자의 고통 체험 현상을 녹음하였다. 참여자의 구술은 추출-종합, 발견적 해석 과정을 통해 인간되어감 이론의 구조로 전환하고, 개념적 해석을 통해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 참여자는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직장과 가정의 역할 갈등으로 고통 받지만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능력 및 소통 강화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보건 의료 전문직 여성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 보건의로, 여성, 지역사회, 직무 스트레스, 질적 연구

Abstract As the Korean society ages, the number of women who specialize in community health care is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structure the nature of suffering due to job stress among female community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to provide basic data supporting the performance of female health care professionals. To use Parse's theory of human becoming, nine female health care professionals were selected in the community. After forming the "you and me" relationship, the researcher recorded the participants' distress through honest conversations. It was converted to the structure of human becoming through the extraction-synthesis and discovery interpretation process. Through conceptual interpretation, the structure of the experience was developed. At the results, the female health care professionals were the process of overcoming difficulty due to poor working conditions and conflict in roles between work and family through their skills and communication reinforcements in hopes for change. The stable national welfare policies must be established to sustain jobs with female community health care experts through improved working conditions.

Key Words : Healthcare, Female, Community, Job stress, Qualitative research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Professor-Master-Bachelor study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Seong-Youl Choi(ckshjrj6@hanmail.net)

Received December 3, 2019

Revised December 19, 2019

Accepted January 20, 2020

Published January 28, 2020

1. 서론

1.1 서론

최근 다양한 직무에서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여성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고용률은 2000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18년 50.9%에 이른다[1,2]. 고용 증가 호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 직장인은 성 차별 등 누적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74.6%가 경력단절을 경험한다[3]. 코로나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여성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계 기능이 저하되어 건강상태가 점차 악화된다[4]. 이는 우울과 같은 정신적 문제와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한다[5].

직무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요 요인은 연간 총 소득, 자기관리, 가구원 수 등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3]. 스트레스 요인의 인지 강도는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6]. 이러한 가운데 결혼이나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여성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7], 이들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의 역할 갈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더욱 심각하게 경험한다[8].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직종 중 보건 및 복지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9]. 보건 의료 전문 인력의 주요 업무는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으로 피로감, 관계갈등 등 많은 감정노동을 경험한다[10]. 뿐만 아니라 낮은 보수, 직장문화,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열악한 환경 또한 스트레스의 위협요인으로 꼽힌다[11-13]. 특히 보건 의료 전문직의 여성 비율이 4배 이상 많아 직무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하고,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저임금에 비해 과도한 노동 강도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이직의사에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되었다[14].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국가책임제,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재활보건사업 등 다양한 보건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별 특성에 맞는 여성 보건 전문요원의 고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15-17]. 특히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주요 인력인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일자리 수는 2005년 대비 2015년 6% 증가하여 보건 의료 전문 인력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가입

국의 인구 천 명당 수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양질의 의료제공을 위해 지속 증가시켜야 하며, 근무 여건의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인력들이 취업 및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하였다[18]. 이와 같이 한국의 고령화와 함께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될 지역사회 보건 의료 전문직 여성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 요구에 따라 최근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국내 보건 의료 전문직 여성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11-13, 18-20].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전문 인력의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건 의료 기관 종사자의 직무 실태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 보고되고 있다[21-24]. 이러한 연구들은 양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보건 의료 전문직과 관련된 주제의 일반화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보건 의료 전문직 종사자 개인이 경험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심층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5]. 질적 연구 방법 중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 방법은 개인의 과거와 현재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경험하는 삶의 현상에 대한 본질을 심층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현상학 적이고 해석학적인 질적 연구 방법이다[26-27]. 보건 의료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는 한 개인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경험에 기인한 현상이며, 미래 경험할 체험적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를 적용하면 보건 의료 전문직 여성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 체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26]. 또한 보건 의료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삶의 경험을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26-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보건 의료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 체험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여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보건 의료 전문직 여성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현상학적-해석학적 질적 연구방법인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 (Parse's Human becoming method)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하는 갈등구조와 고통체험의 의미-관계-초월적 변화 과정을 탐색하였다.

2.2 연구 참여자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 방법에서는 대상자가 연구자와 관계 형성이 되어 진솔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체험을 구술할 수 있어야 한다[26]. 연구 참여자는 편의 표집방법으로 연구자와 관계형성이 가능한 9명의

지역사회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을 선정하였다.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과정을 서면과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 일체는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약속하였다. 연구 수행 도중 어떠한 이유로든 참여 의사가 없어진 경우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전달하였고, 연구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동의하였다.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두 여성으로 연령은 25세에서 36세 임상경력은 2년에서 15년이다. 작업치료사 5명,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2명으로 모두 지역사회 보건의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봉은 2.200만원~3.000만원 수준이 대부분이나 백의 경우 15년 이상의 팀장으로 5000만원 이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Gender	Age	Clinical experience	Job	Annual income (per 1000 won)	Area of work
Kim 1	Female	25y	2y	Occupational therapist	22,500	Health care facility
Lee 1	Female	25y	2y	Occupational therapist	27,000	Health care facility
Yoo	Female	25y	2y	Occupational therapist	22,000	Health care facility
Kim 2	Female	25y	2y	Occupational therapist	22,500	Health care facility
Lee 2	Female	25y	2y	Occupational therapist	24,000	Community dementia center
Jung	Female	26y	2y	Social worker	30,000	Mental health care facility
Baek	Female	36y	15y	Social worker	50,000	Mental health care facility
Lim	Female	36y	7y	Nurse	30,000	Mental health care facility
Park	Female	35y	6y	Nurse	30,000	Mental health care facility

2.3 연구 질문 및 대화 환경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9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에 따라 나와 나의 관계 형성 이후 대화를 통해 수집하였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질문은 “지역사회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으로 종사하면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 받은 체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로 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충분히 마칠 때까지 경청 하였으며, 참여자가 충분히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대화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고통 체험을 어떻게 회상하고, 드러내고, 승화해 나가는지 함께하는 자세로 대화를 진행 하였다.

장소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단 둘이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익숙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녹취된 내용은 대화 당시 참여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가 한컴 오피스 한글 2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사하였다.

2.4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에 따른 연구절차

2.4.1 나와 나의 관계 형성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 자연스러운 만남을 3회 이상 갖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신뢰가 형성되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대화를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하였으며, 대화하는 동안 이야기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진정으로 함께하는 자세’를 유지하였다.

2.4.2 추출-종합

참여자의 체험 현상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개념적인

본질을 선별하기 위해 구술 내용을 추출-종합하였다. 첫 번째 과정은 녹음된 대화 내용에서 참여자가 묘사한 체험의 의미를 이끌어내도록 전사하였다. 두 번째 과정은 전사내용 중 주요 경험을 참여자의 언어로 추출하였다. 세 번째 과정은 추출된 참여자 언어를 연구자 언어로 전환하여 종합하였다. 네 번째 과정은 연구자 언어 종합의 핵심개념을 언어-예술로 표현하였다. 다섯 번째 과정은 언어-예술로 표현된 핵심개념을 추출하였다. 마지막 과정은 이를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와 개념적 본질을 선별하였다.

2.4.3 발견적 해석

발견적 해석 과정은 체험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이론과 연결시키고 추상성이 높은 예술적 표현을 창조하는 구조적 통합과 개념적 해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별 언어-예술을 인간되어감 이론의 구조로 전환하고, 이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대한 발견적 해석을 희망, 기쁨-슬픔, 제한-자유, 만족, 애통, 고통 등과 같은 체험의 의미를 탐색하여 풍후하게 하고, 어휘, 상징, 음악, 은유, 시, 사진, 그림 등 예술적 표현으로 전환하였다.

2.4.4 연구의 엄격성

본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화에 참여한 연구자가 대화 당시 연구 참여자의 행동, 표현, 흐름을 가능한 정확하게 전사하였다. 해석 과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대화를 실시한 연구자가 해석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감정, 어조와 어투를 가능한 반영하여 체험을 그대로 보여주도록 노력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참여자의 구술에 따른 추출-종합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을 추출-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1 참여자 김1의 구술 추출-종합

가. 참여자 김1의 구술

제가 작업치료를... 하게 된 이유는... 취업률이나 성취감이 높은 직업이라고 들어서 하게 되었어요... 막상 임상에 나와 보니 사실상 환자의 기능증진에... 제한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성취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

습니다... 성별이 다른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스킨십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게 합니다... 높지 않은 연봉과 인상을 때문에... 사실상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하였습니다... 전부터... 계획 해왔던... 필라테스 강사... 도전하기 위해 자격증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나. 참여자 김1의 구술 추출

- 1) 제가 작업치료를 하게 된 이유는 성취감이 높은 직업이라고 들어서 하게 되었어요.
- 2) 임상에 나와 보니 환자의 기능증진에 제한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성취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 3) 성별이 다른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스킨십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게 합니다.
- 4) 높지 않은 연봉과 인상을 때문에 사실상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 5)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하였습니다.
- 6) 전부터 계획해왔던 필라테스 강사 도전하기 위해 자격증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다. 연구자 언어 종합

- 1) 의료 한계, 부적절한 보상, 여성으로서 불편한 스킨십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2) 자격증 취득 도전을 통해 현재 직업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라. 언어-예술

참여자 김1의 지역사회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으로 종사하면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체험은 의료 한계, 부적절한 보상, 불편한 스킨십으로 고통 받았지만 자격증 도전을 통해 현재 직업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다.

3.1.2 참여자 이1의 구술 추출-종합

가. 참여자 이1의 구술

작업치료사는... 업무에 비해서 월급을 좀 많이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는 업무는 다른 업종...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월급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연차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인원이

적으니까 대체인력이 없어서... 다른 선생님이라던 연차를... 겹쳐서 쓰지도 못하는게... 좀 불편한거 같아요... 인기 많은 월요일 금요일은 선생님들이랑 돌아가면서 쓰기로 조율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구요... 그나마 연차 사용하는 걸로 눈치는 안 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남자가 더 힘이 세고 치료를 잘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환자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여자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스트레스의 한 부분인거 같아요... 지금 임신하신 선생님이 있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이시기도하고... 앞으로 저도 당연히 결혼을 하고... 애를 가지고... 그랬을 때... 일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PT 쪽에서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기 쪽이나 기계 쪽으로 빼주면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작업치료는 그럴 수 있는 인력도 안 되니까... 편의를 봐주는 그런 게 없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못해도 이틀에서 3일... 헬스나 요가... 다니면서 체력을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 참여자 이1의 구술 추출

- 1) 작업치료사는 업무에 비해서 월급을 좀 많이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 2) 업무는 다른 업종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월급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 3) 연차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인원이 적으니까 대체인력이 없어서 다른 선생님이라던 연차 겹치면 쓰지도 못하고 하루에 한명만 쉬어야 하니까.
- 4) 인기 많은 월요일 금요일은 선생님들이랑 돌아가면서 쓰기로 조율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연차 사용하는 걸로 눈치는 안 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 5) 남자가 더 힘이 세고 치료를 잘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환자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 여자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스트레스의 한 부분인거 같아요.
- 6) 임신하신 선생님이 있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이시기도하고 앞으로 저도 결혼을 하고 애를 가지고 그랬을 때 일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PT 쪽에서는 사람이 많으니까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작업치료는 그럴 수 있는 인력도 안 되니까 편의를 봐주는 그런 게 없

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 7) 퇴근하고 헬스나 요가 같은걸 다니면서 체력을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 연구자 언어 종합

- 1) 작업치료사의 업무에 비해 낮은 급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연차 사용 제한, 치료 시 환자들의 성 차별, 임신 시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2) 여러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있지만 동료와의 소통과 운동을 통해 성숙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라. 언어-예술

참여자 이1의 지역사회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으로 종사하면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체험은 업무에 비해 낮은 급여, 인력 부족, 성 차별,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고통 받았지만 동료와의 소통과 운동을 통해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3.1.3 참여자 유의 구술 추출-종합

가. 참여자 유의 구술

연차를 쓸 때 PT같은 경우는 치료사 수가 많아서 한 날짜에 여러 명이 연차를 쓸 수가 있는데... OT같은 경우에는 수가 적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또 월급이 하는 업무에 비해 조금 적다고 생각해요... 또 작업치료를 다들 잘 모르고 계시니까... complain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자 치료사라는 이유로 transfer 할 때 불안할 것 같다고... complain을 받아서 치료사를 남자 치료사로 바꿔달라고...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많고... 아직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또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PT쪽 같은 경우에는 FES로 많이... 빼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OT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건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최근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됐는데... 체력적인 부분이 그나마 좋아지면서 OT를 계속하고 있어요.

나. 참여자 유의 구술 추출

- 1) 연차를 쓸 때 PT같은 경우는 치료사 수가 많아서 한 날짜에 여러 명이 연차를 쓸 수가 있는데 OT같은 경우에는 수가 적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 2) 월급이 하는 업무에 비해 조금 적다고 생각해요.
- 3) 작업치료를 다들 잘 모르고 계시니깐 complain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 4) 여자 치료사라는 이유로 transfer 할 때 불안할 것 같다고 남자 치료사로 바꿔달라고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많고
- 5) 아직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PT쪽 같은 경우에는 FES로 많이 빼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OT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깐 그건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 6) 최근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됐는데 체력적인 부분이 그나마 좋아지면서 OT를 계속하고 있어요.

다. 연구자 언어 종합

- 1) 작업치료사 업무에 비해 낮은 급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연차 사용 제한, 치료 시 작업치료의 낮은 인지도와 성 차별, 임신 시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2) 여러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있지만 근무지 이동을 통해 작업치료사 현재 직업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라. 언어-예술

참여자 유의 지역사회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으로 종사하면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체험은 업무에 비해 낮은 급여, 인력 부족, 직무의 낮은 인지도, 성 차별,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고통 받았지만 근무지 이동을 통해 현재 직업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다.

3.1.4 참여자 김2의 구술 추출-종합

가. 참여자 김2의 구술

직장이 수직적인 구조가 저에게 스트레스예요... 저의 치료에 다른 선생님들이 개입을 하거나... 고년차 선생님들이 주는 술을 다 마셔야 되는 그런 강압적인 문화가 있는데... 이처럼 저의 권리가 중요시 되지 않고... 환자들에게 근거기반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들을... 들으러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 부족함이 많이 해소되고... 교육들은 대부분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비용 쪽으로 조금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돼요... 교육을 듣고... 저는 발전을 해나가는데 실상 저의 급여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적으니... 의욕도 조금 저하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지식을 쌓고도 환자분들이... 남자가 힘이 좋다는 이유로... 여자 치료사가 본인의 치료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작업치료가 현재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더 교육을 듣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요... 국가가... 작업치료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줬으면...

나. 참여자 김2의 구술 추출

- 1) 저의 치료에 다른 선생님들이 개입하거나 고년차 선생님들이 주는 술을 다 마셔야 되는 그런 강압적인 문화 수직적인 구조가 스트레스예요.
- 2) 환자들에게 근거기반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듣고 발전을 해나가는데 비용 쪽으로 조금 부담감을 느끼게 돼요. 실상 급여에는 인정되는 부분이 적으니 의욕도 조금 저하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 3) 교육을 듣고 지식을 쌓고도 환자분들이 남자가 힘이 좋다는 이유로 여자 치료사가 본인의 치료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돼요.
- 4) 국가가 작업치료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줬으면
- 5) 작업치료가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교육을 듣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요.

다. 연구자 언어 종합

- 1) 위계적인 조직체계, 교육비 부담, 교육에 대한 보상 부족, 치료 시 환자들의 성 차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2) 양질의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참여, 국가 차원의 홍보 강화를 통해 작업치료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전환 있음.

라. 언어-예술

참여자 김2의 지역사회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으로 종사하면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체험은 위계적

인 조직체계, 교육비 부담과 보상 부족, 성 차별로 고통 받았지만 교육 참여, 국가 차원의 홍보 강화를 통해 작업치료사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3.1.5 참여자 이2의 구술 추출-종합

가. 참여자 이2의 구술

치매안심센터 지침을 보면은 업무 범위가 있는데... 작업치료사 업무를 보면은 치매어르신들이 프로그램 한다거나... 일반군 어르신들이 예방교실 한다거나... 프로그램 너무 중심적으로 너무 그쪽으로 치우쳤다고 해야되나... 근데... 간호사는 뭐 선별검사도하고 MMSE한다거나... 사회복지사는 뭐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가족 분들을 교육한다거나 그런 업무가 또 좀 광범위하게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학교 다닐 때... MMSE나... 환자분들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거나 뭐 이런 거를 충분히 배웠는데, 저희는 너무 프로그램 쪽으로 지금 업무범위가 너무 집중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보건의료원 쪽에서는 공무원이 물리치료사 밖에 없거든요. 근데... 입원환자가 연하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연하치료를 못하시잖아요. 작업치료사가 필요한 경우인데... 작업치료사 공무원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직장도... 작업치료사 한 명 뿐이고 다른 센터도 보면 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진짜 수가 너무 적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누가 휴가... 연가를 가면은 대신해줄 사람이 있는데 작업치료사들은 대신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다 빼고 연가를 사용하거나 휴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의 업무나... 그... 작업치료의 필요성을 더 알리기? 위해서는... 광역이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모이는 자리에서?... 작업치료사들이 필요한 점을 이야기하고... 조금 더 강조하고? 또 서로... 그 치매안심센터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들끼리 그런... 다양한... 업무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걸 자주 이야기하면서 공유를 해서... 이제 좀... 더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역에서 주최하거나 그런 발전대회나 워크숍에 참여해서 저희가 일하면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 참여자 이2의 구술 추출

- 1) 치매안심센터 업무 범위가 있는데 간호사는 MMSE, 사회복지사는 가족 분들 교육한다거나 광범위 하게 있는데 학교 다닐 때 MMSE나 환자분들 환경을 개선하거나 충분히 배웠는데 작업치료사 너무 프로그램 쪽으로 집중되어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 2) 보건의료원 쪽에서는 공무원이 물리치료사 밖에 없거든요. 근데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입원환자가 필요한 연하치료를 못하시잖아요. 작업치료사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 3)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 비해 작업치료사 공무원이 많이 없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4) 다른 선생님들은 누가 휴가 연가를 가면은 대신해줄 사람이 있는데 작업치료사 한 명 뿐이고 대신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다 빼고 쓰는 거죠.
- 5)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의 업무나, 작업치료의 필요성을 더 알리기 위해서 광역이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모이는 자리에서 필요한 점을 이야기하고 치매안심센터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들끼리 다양한 업무적인 공유를 해서 더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6) 저는 발전대회나 워크숍에 참여해서 저희가 일하면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 연구자 언어 종합

- 1) 제도적 한계로 인한 작업치료사 고유 업무 제한, 치료 서비스 성격에 맞는 전문 인력 채용 제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연차 사용 제한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2) 동일 업종 치료사와의 네트워크 형성, 전문가 집단을 통한 정보공유를 통해 현실의 개선해야 할 부분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음.

라. 언어-예술

참여자 이2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으로 종사하면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체험은 제도적 한계로 인한 업무 제한과 서비스 제공의 질 저하, 인력 부족으로 고통 받았지만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공유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이다.

3.1.6 참여자 정의 구술 추출-종합

가. 참여자 정의 구술

시간 외 근무가 필수로 들어가야 해서 아침, 저녁으로 당직을 들어가고... 이 일이 체력적인 일이 많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빨리 소진되고... 이용인의 일상적인 일을 일대일로 거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가 씻기고 입고 먹고... 그런 분들을 거의 일인당 열여섯 명 이상씩 맡고 있기 때문에... 은행도... 병원도... 동사무소도... 우체국에도... 서류적인 업무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밖으로도 나가야 되고... 매주 피곤한 상태로 일이 밀리는 상황이 반복... 생활 시설이다 보니까 24시간 돌아가야 되서 직원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가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그냥 제 연차로 빨간 날을... 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근무체계에 대해서 겪는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3주 연속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기 때문에 사람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소비가 굉장히 심해요... 이용인의 증상에 따라서 또 개인의 특성과 정신과적 증상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하고... 최근에... 몸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피로하고... 이런 증상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자가 면역질환이라는 병명이 나왔고...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 상 건강 악화... 저희 근무 상 규칙적이지 못한 출퇴근... 출근 시간에 맞춰서 잠을 자야 돼서? 거의 2시간에 한 번씩은 깨는 꼴로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 주말 근무... 가족들하고도 만나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미안한 거... 굉장히 우울적으로 다가 왔었는데... 제가 지금 총집합으로 아픈가 봅니다... 갑작스럽게 변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 짝꿍 선생님과 팀원들과 의견을 통하면서 논의하고, 새 변화에 적응하게끔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몸 건강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근무 일수를 조정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퇴사까진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한 번쯤은 이겨내면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참여자 정의 구술 추출

- 1) 시간 외 근무가 필수로 들어가야 해서 아침, 저녁으로 당직을 들어가고 체력적인 일이 많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빨리 소진되고
- 2) 일인당 열여섯 명 이상씩 맡고, 서류적인 업무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밖으로도 나가야 되고 매주 피곤한 상태로 일이 밀리는 상황이 반복
- 3) 연차로 빨간 날을 쉬라고 하는 것, 3주 연속으로 일을 하는 경우, 사람 스트레스가 심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소비가 굉장히 심해요.
- 4) 최근 몸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피로하고 이런 증상 때문에 검사를 해봤는데 자가 면역질환,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 상 건강 악화
- 5) 출근 시간에 맞춰서 잠을 자야 돼서? 거의 2시간에 한 번씩은 깨는 꼴로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 주말 근무
- 6) 가족들하고도 만나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미안한 거 굉장히 우울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제가 지금 총집합으로 아픈가 봅니다.
- 7) 이용인 개인의 특성과 증상에 따라 공부도 해야 하고, 짝꿍 선생님과 팀원들과 의견을 통하면서 논의하고, 새 변화에 적응하게끔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 8) 몸 건강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근무 일수를 조정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퇴사까진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한 번쯤은 이겨내면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연구자 언어 종합

- 1) 과도한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 열악한 근무 여건, 전문가 간 소통 문제, 가정과 직장 내 역할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2)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습, 팀원 간 소통강화, 건강관리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음.

라. 언어-예술

참여자 정의 지역사회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으로 종사하면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체험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 열악한 근무 여건, 전문가 간 소

통 문제, 직장과 가정 내 역할 갈등으로 고통 받았지만 학습, 소통강화, 건강관리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이다.

3.1.7. 참여자 백의 구술 추출-종합

가. 참여자 백의 구술

사회복지법인... 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적장애 거주시설에서 한 8년간 일하고, 법인사무국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정신요양원에서... 2년 정도...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해서... 직급이... 팀장으로... 직원 한 명당 지원하고 서비스해야 되는 이용인이 대략 한 16:1정도 비율이에요. 그래서... 서비스하는데... 질적인 딜레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오고, 업무 과정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진짜 피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양원에 정책이라던지 그런 방향 부분과... 실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팀원들의 바램이나 요구나 필요성과 이게 합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중간관리자로서 그 둘 사이에 역할을 조정하는데... 특히나 조금 더 많이 어려운 것 같구요... 위에서는... 조율을 제가... 수행해내기를 바라는데... 부담감도 굉장히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요... 팀원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데 한계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불편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 교육을 받았는데... 책임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관이 이렇게 정했으니깐 이게 방향이니까 라는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라고... 하면 안된다는 그런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한계도 오고 내가 정말 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가 이런 고민도 되고... 여전히 연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간관리자로서... 수행해나가고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나. 참여자 백의 구술 추출

- 1) 사회복지법인에서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해서 직급이 팀장으로
- 2) 직원 한 명당 지원하고 서비스해야 되는 이용인이 대략 16:1정도 비율이에요. 서비스하는 질적인 딜레마라든지 항상 오고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3) 요양원에 정책 방향부분과 실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팀원들의 요구나 필요성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중간관리자로서 조정하는데 많이 어려운 것 같구요.

- 4) 위에서는 조율을 제가 수행해내기를 바라는데 부담감도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요.
- 5) 팀원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데 한계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제안을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
- 6) 책임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라고 하면 안된다 라는 한계도 오고 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가 고민도 되고
- 7) 여전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고 중간관리자로서 노력하고 수행해나가고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다. 연구자 언어 종합

- 1)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과중, 서비스 제공 기관과 구성원 사이의 갈등 조율의 한계, 직장 내 역할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2) 책임감 고취를 위한 교육, 직장 내 역할 연구를 통해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음.

라. 언어-예술

참여자 백의 지역사회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으로 종사하면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체험은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 구성원 사이의 갈등 조율 한계, 직장 내 역할 갈등으로 고통 받았지만 교육과 직장 내 역할 연구를 통해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이다.

3.1.8 참여자 임의 구술 추출-종합

가. 참여자 임의 구술

저는... 가정주부고 두 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일을 하다가... 올해 2019년 간호사 면허취득을 취득하였습니다... 두 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를 아침 일찍 보내야 될 때가 가장 힘이 들고 또 저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젠 늦게 끝났을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또 늦게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과 어 미안함과... 이렇게 애를 키워도 되나 하는 의문점을 항상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항상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집중력이 조금 없어지는 때가 항상 있어서 잘... 까먹으니까... 일에 있어서도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간호사로서... 이용인 약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되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앞으로도 스트레스 될 거 같아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지 시간이 필요하고 차차 극복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나. 참여자 임의 구술 추출

- 1) 가정주부고 두 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를 아침 일찍 보내야 될 때가 가장 힘이 들고 저도 준비해야 되고
- 2) 늦게 끝났을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안감과 미안함과 이렇게 애를 키워도 되나 하는 의문점을 항상 가지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 3)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항상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4) 일을 함에 있어서 집중력이 조금 없어지는 때가 항상 있어서 잘 까먹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간호사로서 이용인 약 부분에 대해서도 누락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 5) 현재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앞으로도 스트레스 될 거 같아서 걱정이 앞섭니다.

다. 연구자 언어 종합

- 1) 직장내 가정 내 역할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2)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내적 성숙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음.

라. 언어-예술

참여자 임의 지역사회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으로 종사하면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체험은 직장내 가정 내 역할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로 고통 받았지만 내적 성숙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이다.

3.1.9 참여자 박의 구술 추출-종합

가. 참여자 박의 구술

임상병리사로 5년 근무하다가... 간호사로 입사한 지 3개월 차... 8, 9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직 이 직무에 경험이 많지 않아...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부분에서 가끔 어려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제하는 사항들을 전달하는 방식 등이...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점... 요즘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점... 양가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폐렴으로 입원을 했는데 주말 제외한 평일에는 저와 남편 둘 다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이를 간병할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사시는... 시어머나가... 간병을... 아이들의 학교 시간이... 퇴근 시간보다 빠르기 때문에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 대체적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건 웃으면서 하자라는 생각... 가수의 노래를 듣거나 공연을 직접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기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 참여자 박의 구술 추출

- 1) 아직 이 직무에 경험이 많지 않아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부분, 인제하는 사항들을 전달하는 방식 등이 어려움 느낄 때가 있습니다.
- 2) 요즘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점 아이들이 폐렴으로 입원을 했는데 양가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 3) 어차피 해야 되는 건 웃으면서 하자라는 생각 대체적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 4) 가수의 노래를 듣거나 공연을 직접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기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 연구자 언어 종합

- 1) 아직 미숙한 업무 능력, 직무 수행 체계의 한계, 직장내 가정 내 역할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2)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가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음.

라. 언어-예술

참여자 밖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으로 종사하면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체험은 미숙한 업무 능력, 직무 수행 체계의 한계, 직장과 가정 내 역할갈등으로 고통 받았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여가 생활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이다.

3.2. 언어-예술의 개념적 통합

구술 추출-종합에 따른 각 참여자의 언어-예술은 Table 2에 종합하였으며, 핵심 개념을 통합한 결과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체험은 가치화와 상상화를 가능-제한, 연결-분리, 노출-은폐하여 강화, 변형해가는 과정으로 Table 3에 제시하였다.

3.3. 핵심 개념의 구조적 전환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 참여자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체험에 대한 발견적 해석의 결과 구조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직장과 가정의 역할 갈등으로 고통 받지만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능력 및 소통 강화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 고통 체험과 승화 과정은 Dale Carnegie의 저서 친구를 얻고 사람을 움직이는 법에 등장하는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가 의미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Table 2. Language-art

Participant	Language-Art	Conceptual Integration
Kim 1	Suffered from medical limitations, inadequate compensation, and uncomfortable physical contact, but matured by challenging herself to obtain certification (or license)	Imagination potential-Limited reinforcement
Lee 1	Suffered from low salaries compared to workload, lack of manpower, gender discrimination, and poor working conditions, but trying to maintain current job by exercising and communicating with colleagues	Value potential-Limited connection-Disconnected reinforcement
Yoo	Suffered from low salaries, lack of manpower, low job recognition, gender discrimination, and poor working conditions, but trying to maintain current jobs by moving the work location	Imagination exposed-Concealed modification
Kim 2	Suffered from hierarchical organizational system, burden of education cost and lack of compensation, and gender discrimination, but transforming by expectations that awareness of occupational therapists can be improved through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strengthened public relations at the national level	Imagination potential-Limited modification
Lee 2	Suffered from work limitations due to institutional limitations, poor quality of service provision, and lack of manpower, but starting to be willing to change the reality through development of expert networks and information sharing	Value connection-Disconnected modification
Jung	Suffered from poor health due to excessive work, poor working conditions, communication problems between professionals, and role conflict between work and home, but starting to be willing to overcome difficulties in reality through learning, strengthening communication, and maintaining health	Value potential-Limited connection-Disconnected reinforcement
Baek	Suffered from lack of manpower, excessive work, conflict coordination among employees, and role conflict in the workplace, but starting to be willing to strengthen the role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on their role in the workplace	Value potential-Limited exposure-Concealed reinforcement
Lim	Suffering from role conflict between work and home resulting in deterioration of work efficiency, but starting to be willing to overcome difficulties in reality through internal (or intrinsic) maturity	Linguistic exposure-Concealed reinforcement
Park	Suffered from inexperienced work competence, limited job performance system, and role conflict between work and home, but starting to be willing to overcome difficulties in reality through positive thinking and leisure time	Value exposed-Concealed reinforcement

Table. 3 Progressive abstraction of the core concepts

Core Concept	Structural Transition	Conceptual Integration
Stress due to poor working conditions Role conflict between work and home Expectation of change Strengthen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Trying to overcome difficulties in reality	Poor working conditions Role conflict distress Reality change and overcoming Positive change	Value Imagination Potential-Limit Connect-Disconnect Expose-Conceal Reinforcement Modification
Structure		
Suffering from job stress among female health care professionals is a process of experiencing stress under poor working conditions and suffering from role conflict between work and home, but trying to overcome difficulties in reality by strengthen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in anticipation of change.		
Structural Transition		
Suffering from job stress among female health care professionals is a process in which they try to turn the pain of role conflict due to poor working conditions into a change in reality and overcome such pain.		
Conceptual Integration		
Suffering due to job stress among female health care professionals is a process of strengthening and transforming value and imagination by enabling-restricting, connecting-disconnecting, exposing-concealing.		
Metaphorical Disclosure		
Few things are actually recognized...there are limits... need to spend less time with family... want to instill awareness... if we were trained and provide quality service... participate in development competitions and workshops... something that needs to improve... try and talk more...		
Artistic Expression		
Most of the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have been accomplished by people who have kept on trying when there seemed to be no hope at all.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Dale Carnegie)		

4. 고찰

지역사회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체험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직장가 가정의 역할 갈등으로 고통 받지만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능력 및 소통 강화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과정이다. 열악한 근무 여건에는 업무에 비해 낮은 급여, 부적절한 보상, 성 차별, 불편한 스킨십, 열악한 근무 환경, 인력 부족, 의료의 제도적 한계, 위계적인 조직체계 등이 있었으며, 자격증 도전, 소통 강화, 네트워크 형성, 건강관리, 인식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할 연구, 내적 성숙, 긍정적인 생각, 여가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의지로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 김1, 이1, 유, 김2는 낮은 급여로 인하여 업무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직무 스트레스의 한 요인이 된다고 구술하였다. 이는 저임금 여성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의 낮은 급여 또는 보상 결여가 고용불안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이는 우울증까지 연결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8].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에 직무 스트레스를 보고한 연구에서 자신의 직무와 역할

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면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이는 타 직종과의 상대적 열등감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29].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 유와 김2는 업무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함과 동시에 함께 근무하는 유사 직종과 자신의 여건을 비교하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보건의로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 인상,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의 직무 여건 개선이 요구된다[30]. 연구 참여자 중 백의 경우 다른 참여자와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나 이는 한 직장에서 15년을 근무한 후 인상된 급여이며 팀장 수당, 시에서 제공하는 특별 수당, 당직 수당 등을 받는 소수 인원에 해당된다고 보고 하였다.

한국은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공사를 막론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여성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노인 주거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이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경험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계획된 행동이라기보다 친근감을 표현하는 잘못된 행동방식이라고 보고하였다[31]. 본

연구에서도 김1은 환자의 스킨십으로 인해 불편한 상황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1도 스킨십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거나 행위자의 성적 만족이 있었다면 성희롱 또는 성추행까지 성립이 된다[32]. 따라서 두 가지 사례 모두 행위자의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일반적 지식과 개념이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성희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성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나 법적 규범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개인별, 집단별 문화적 차이에 따라 상담, 고충 처리, 맞춤 교육 등 포괄적인 예방과정이 보건의로 기관의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32].

참여자 이1, 백과 정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량이 가중되고 이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한다고 언급하였다. 기존에 보건의로 노동자 실태조사에서도 인력 부족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고 발생과 결부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되었다[33]. 반면 비교적 복지가 안정된 호주에서는 치료사 1인당 환자 수를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3]. 참여자 유와 이2는 충분하지 못한 인력으로 인해 휴가 및 연차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전국 보건의로직 종사자 여성의 여가 활용 비중의 38.2%는 잠자기, 23%는 가사일, 9.3% TV시청, 7.5%는 자녀와의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3]. 이는 보건의로직의 노동 강도가 높고 업무 외 시간에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이 매우 부족함을 반증하는 수치이다. 특히 참여자 정, 임은 연차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충돌로 인해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업무 효율성 저하를 경험했다고 구술하였다. 한국의 직장 여성의 대부분은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가정 내 역할과 직장 내 직무수행에 이중 부담을 경험하며[34],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결혼 불만족, 삶의 질 저하, 저조한 업무 성과[35], 경력 단절[36], 그리고 저 출산[37]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과도한 업무, 연차 사용 제한, 가정과 직장 사이의 역할 갈등을 모두 경험한 참여자 정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의 악화까지 경험하며 입원 치료를 받아야할 상황에 놓였으나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의 열악한 근무 환경 경험은

이직 의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14].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 중 김1, 유, 박은 이직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려고 시도하였거나 그 과정에 있어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들은 같은 직업을 유지하면서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유사한 보건의로직종으로의 이직을 선택하였다. 이는 보건의로직 종사자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직무에 대한 자긍심이 높기 때문에[14]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그 외 7명의 참여자들은 이직 대신 현재 직무를 유지하면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긍정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현실극복을 위한 방안은 소통 강화, 교육 참여,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공유, 건강관리, 내적 성숙 등으로 참여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보건의로 전문직 여성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직장과 가정 내 역할 갈등으로 이어져 고통 받지만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능력 및 소통 강화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국가책임제,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재활보건사업 등 다양한 보건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맞는 복지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5-17]. 이와 함께 보건의로 서비스 수요와 전문인력의 요구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가입국 복지 지표 분석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경제적·재정적 및 복지 수요 지표는 OECD 가입국의 평균을 상회하며, 보건 총족 지표와 국민 행복 지표는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복지제도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며, 향후 다칠 저 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다[38]. 저 출산, 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 연구에서 30대와 4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으며, 출산 및 육아를 시작하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50대와 60대에도 여전히 경제활동 비율이 낮고 65세 이상에 이르면 한국의 경제활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39]. 이는 자녀를 보육해야 하는 기간 이후에도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건의로 전문직 종사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규직의 비율은 34.6%이며 그 외에는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의 형태로 고용되고 있다[14-17]. 또한 여성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로 결혼출산을 미루거나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전체 여성 인구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보건정책의 요구 증가, 저조한 국민 행복 지표,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연관성이 없다고 결코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복지 지출을 GDP가 따라가지 못하면 이미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과 같이 국가재정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 안정적인 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용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에 따라 너와 나의 관계 형성을 위한 연구 참여자를 편의 표집하면서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의 다른 보건의료직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개인의 경험에 대한 성찰은 이루어 졌으나 스트레스 요인 간의 연관성은 밝히지 못하였다.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의료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체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안정한 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아 경력단절로 이어 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사회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재정을 유지하면서 복지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J. Y. Lee & H. S. Kim. (2014). A qualitative Study on Work-Family Interface at a Women's Hospital in Korea. *Korea Business Review*, 18(3), 27-55.
- [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9). *Women's Lives through Statistics*. Dae-jeon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3] E. J. Bae, Y. H. Cho & W. M. Kim. (2019). The Influence of Job Characteristics and Job Environment 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 : Focused on Women Employees.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59, 127-145.
DOI : 10.17949/jneac.1.59.201906.008
- [4] R. J. Handa & W. C. Chung. (2019). Gender and stress. In *Stress: Physiology, Biochemistry, and Pathology. Handbook of Stress Series*. 3, 165-176.
- [5] T. S. Um & H. S. Kim. (2013). Impacts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depression among local public servants. *Health and Social Science*, 34, 135-158.
- [6] K. B. Kim, J. H. Lee, Y. J. Lee, J. W. Noh & Y. D. Kwon. (2018). Factors Affecting Level of Perceived Stress by Gender. *The Korea Contents Society*, 18(3), 235-245.
- [7] S. L. Lim, J. H. Kim, D. S. Lee & E. Y. Kim. (2000). Women's Job Stress, Coping Resources and Mental Health - In the Sample of Female Office Workers in a General Hospital.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9(6), 999-1009.
- [8] S. J. Chang et al. (2005). Epidemiology of Psychosocial Distress in Korean Employees.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38(1), 25-37.
- [9] Y. H. Kim, Y. T. Kim, B. Y. Seon & S. B. Gho. (2006). *Job Stress and Its Management for Women Service Workers in Korea*. Seoul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10] F. A. Vigan & D. Giaque. (2018). Job satisfaction in African public administration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84 (3), 596-610.
DOI : 10.1177/0020852316651693
- [11] Y. J. Cha. (2012). Comparative Study on the Impact Factors in Job Stress in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Korean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2(6), 380 - 389.
DOI : 10.5392/JKCA.2012.12.06.380
- [12] H. J Kim & H. Y. Kim. (2017).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mong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9(3), 290-301.
DOI : 10.7475/kjan.2017.29.3.290
- [13] S. K. Park. (2017). Analysis of the Job Stress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in Physical Therapis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5(3), 39-47.
DOI : 10.15268/ksim.2017.5.3.039

- [14] J. S. Lee, H. M. Co, H. J. Jeong & H. (2016). Working Conditions of the National Health Care Workers - Wages, Work Conditions and Environment, *The Journal of Labor Studies*, 33, 169-197.
DOI : 10.14367/kjhep.2018.35.2.103
- [15] S. H. Ju, R. K. Choi & G. S. Kim. (2006). The Status and Policy Issues of Elderly's Welfare Needs in Local Governme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10(4), 195-220.
- [16] D. W. Lee & S. J. Seong. (2018). Korean national dementia plans: from 1st to 3rd.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61(5), 298-303.
DOI : 10.5124/jkma.2018.61.5.298
- [17] C. Y. Park, A. J. Jo, S. H. Kang & S. Y. Yu (2018). Current Trends of Dementia Management in Korea and Some Countries. *The Journal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6(1), 4-15.
DOI : 10.34161/johta.2018.6.1.002
- [18] H. S. Jeong. (2017). Job Creation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51, 14-27.
- [19] S. H. Lee & Y. S. Bang. (2015).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and Burnout on the Job Attitude of Occupational Therapis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3(1), 95-108.
- [20] J. H. Lee, Y. W. Song & T. H. Cha. (2017). A Study on Job Stress and Working Environment of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2), 484-492.
- [21] K. S. Park. (2018). Remuneration and Treatment of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66, 24-38.
- [22] M. W. Lee, S. G. Lee & Y. S. Choy. (2015). The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Geriatric Hospital.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21(3), 22-36.
- [23] H. G. Kim, R. S. Lee, S. N. Jang, K. B. Kim & Y. R. Chin. (2018). Comparison of Working Conditions among Non-regular Visiting Nurses in Public Health Centers based on Their Employment Typ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9(3), 267-278.
DOI :10.12799/jkacn.2018.29.3.267
- [24] M. K. Kim, J. E. Park, S. J. Kim & H. G. Ryu. (2018). The recognition of Health Education Specialists qualification system of public health center workers in Busan.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5(2), 103-112.
- [25] J. W. Creswell & C. N. Poth.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 [26] C. S. Marlaine & M. E. Parker. (2015). *Nursing theories and nursing practice*. Philadelphia: F.A.davis company
- [27] R. R. Parse. (2001). *Qualitative inquiry: the path of sciencing*. sudbury MA: Jones & Bartlett Learning
- [28] S. K. Park, S. W. Lee & J. Y. Song. (2017).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Work-Family Conflicts and Depression among Female Low-wage Workers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Social Work*, 58, 123-150.
DOI : 10.16975/kjfs.2017..58.005
- [29] Y. S. Kim. (2007). *Study of effect Job Stress of Stay-at-Home Aged Welfare Facility Workers on Care Service -Focusing on Seoul Seodaemun-gu*.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Myungji University, Seoul.
- [30] H. W. Cheon & H. S. Lee. (2010).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management system of dental auxiliaries-dental hygienist, nurse's aide, consultant and coordinator, administrative manag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34(1), 72-82.
- [31] C. S. Rim & I. S. Lee. (2013). A Study on Elderly Residents' Sexual Harassments Experienced by the Women Care Workers in Retirement Living Faciliti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1), 220-259.
- [32] S. H. Lee & H. K. Moon. (2009). Theoretical Bases of Legal System and Remedy/Prevention Policies for Understanding Sexual Harassment.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21(2), 217-242.
DOI : 10.17317/tje.21.2.200912.217
- [33] The Australian Health Care System. (2000).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http://www.health.gov.au>
- [34] D. B. Chung. (201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Personal Life & Work Life Satisfaction of Female Worker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99(4), 722-743.
DOI : 10.33949/tws.2018.99.4.003
- [35] Y. S. Kang. (2011). The Changes of Husband's Attitudes to Work-Family Problems in Dual

Earner Families. *Keimyung University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4(1), 43-87.

- [36] J. E. Ye et al. (2010). *Report on working moms in Korea*. Seo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37] E. J. Koo. (2019). Re-recognition of low-birth-rate: the values in the private familiar sphere. *The Women's Studies*, 100(1), 191-226.
- [38] S. H. Kim, H. S. Jeong, S. E. Lim & S. A. Kim. (2016). *Measuring and Assessing Well-being in OECD Countries*.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39] S. J. Kim. (2019). A Critical Study on the Population Policy of Korea in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22(2), 143-158.

김 한 슝(Han-Som Kim) [학생회원]



- 2018년 2월 : 광주여자대학교 작업치료학과(보건학학사)
- 2019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석사과정)
- 관심분야: 신경계 재활 성인 작업치료
- E-Mail : gksth72@naver.com

최 성 열(Seong-Youl Choi)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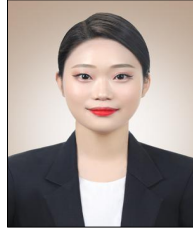
- 2014년 2월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작업치료학과(보건학석사)
- 2017년 8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유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 융합, 지역사회 재활, 지역사회 작업치료
- E-Mail : ckshrij6@hanmail.net

이 예 은(Ye-Eun Lee) [학생회원]



- 2018년 2월 : 광주여자대학교 작업치료학과(보건학학사)
- 2019년 9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석사과정)
- 관심분야 : 신경계 재활, 지역사회 작업치료, 성인 작업치료
- E-Mail : aszx167@naver.com

유 지 연(Ji-Yeon Yu) [학생회원]



- 2019년 2월 : 광주여자대학교 작업치료학과(보건학학사)
- 2019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석사과정)
- 관심분야 : 치매, 노인 작업치료
- E-Mail : wldus3483@naver.com

박 지 현(Ji-Hyeon Park) [학생회원]



- 2018년 2월 : 광주여자대학교 작업치료학과(보건학학사)
- 2019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석사과정)
- 관심분야 : 정신사회작업치료, 성인 작업치료
- E-Mail : ycc5718@naver.com

변 주 영(Ju-Yeong Byeon) [학생회원]



- 2018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사과정)
- 관심분야 : 지역사회 작업치료, 지역사회 보건
- E-Mail : bbju45@naver.com

양 가 영(Ga-Young Yang) [학생회원]



- 2018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사과정)
- 관심분야 : 지역사회 작업치료, 지역사회 보건
- E-Mail : gayoung0209@naver.com

곽 은 별(Eun-Byeol Kwak) [학생회원]



- 2018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사과정)
- 관심분야 : 지역사회 작업치료, 지역사회 보건
- E-Mail : kwak5515@naver.com